

光州直轄市支部篇

앞서가는 運營, 앞서가는 支部



朴永熹 / 光州直轄市支部長

우리 大韓建築士協會도 어언 23년이란 나이가 들었다. 우리가 1965년 10월 23일 건설회관 7층에서 創立總會를 하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세상이 변하여도 두번이나 넘게 변한 세월이 되었다.

창립당시에도 완전한 것은 되지 못했으나 어느 정도는 獨立豫算制에 의한 예산처리를 잘하여 왔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정부의 형태가 維新體制라면서, 統合豫算이란 청천벽력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서 여러가지로 이유가 안되는 이유를 대면서 억지로 끌고 가는데, 여기에 반기를 들고 여기저기에서 부당함을 들어 투쟁하여 왔으나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10년이란 세월이 또 어느덧 흘러가고 말았다.

우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독립예산제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中央執權에서 地方自治로 변모를 부르짖어 왔으나 뜻대로 되지 못하고 이제까지 끌어왔다. 우리의 主張은 통합예산제에 대한 어려운 점을 그당시 여러가지로 노출하였다.

예산 다쓰기 운동, 예산 더타기 운동. 이런 모든 문제로 인하여 예산절감이란 이유를 들어 통합예산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어쨌든 88년도부터는 어느 정도의 獨立豫算制라는 방법으로 回歸한 이상 우리 각 지부는 우리가 그렇게 원한 제도가 되었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 모든 회원과 모든 지부임원은 전에도 호주머니를 털어 운영하여 왔으나 언제고 더더욱 실감나게 우리 각 지부회원이 원하고 갈망한 방향으로 모든 예산을 유효 적절히 배정함은 물론 하나 하나 모든 것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豫算配定과 예산집행에 더많은 신경을 써서 모든 회원의 피부에 닿는 예산집행을 할 것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 모든 것이 정부의 지방자치제 운용에 한발 앞서 하는 제도로 알고 집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가 연합회 제도로 가는 첫걸음으로 생각하여 모든 지부의 운영을 과감히 처리하여 다른 단체나 모든 기관보다 앞서가는 단체가 되어 갈 것을 믿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朴永熹
필자는 39년 전남생으로 63년 전남대 건축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직할시지부장과 광주직할시 도시계획위원이며 부등, 백제, 우주 종합건축사사무소를 자영하고 있다.